


전문숍이 아닌 집에서 직접 피부를 관리하는 혼뷰티족을 위한 뷰티 디바이스와 기초제품들. (왼쪽부터)모공과 블랙헤드 관리에 좋은 이니스프리 '수퍼 화산송이 클레이 무스 마스크', 얼굴 전용 전동 클렌저 클라리소닉의 '미아2', 아마존 화이트 클레이 성분이 있어 피부 정화와 진정에 좋은 키엘 '레어 어스 딥 포어 클렌징 마스크, 2분간의 사용으로 눈가 주름 개선 등 레이저 시술효과를 볼 수 있는 트리아의'아이 리뉴 레이저'. 얼굴 라인을 입체적으로 가꾸어주는 랑콤 '레네르지 리틀 페이스 롤러'.

# 내 피부는 내가 챙긴다…'혼뷰티족' 잡아라

## 진동 클렌저·페이스 롤러·아이 레이저 등 뷰티 디바이스 인기…모공케어 팩도 불티

뷰티

'1코노미', '혼족'등 싱글 라이프스타일이 주목받고, 경기불황 탓에 합리적인 소비에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뷰티업계의 주류인 피부관리 제품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 에스테틱이나 전문숍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간편하게 피부관리를 원하는 '혼뷰티'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집에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나 홈케어에 적합한 기초제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전년 대비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시작 클렌징, 뷰티 디바이스 인기**

피부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은 모공 속에 남은 메이크업 잔여물과 각종 노폐물이기 때문에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세안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트러블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클라리소닉의 '미아2'는 초당 300회 회전하는 미세한 진동으로 피부 속 미세먼지까지 꼼꼼하게 제거해주는 페이스 전용 진동 클렌저다. 손보다 6배 더 뛰어난 세정력으로 피부 속의 노폐물은 물론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꼼꼼하게 클렌징이 가능하다.

**●늘어난 모공과 블랙헤드 관리는 전용 팩으로**

넓어진 모공과 코 주변에 까맣게 박힌 블랙헤드는 여성들의 큰 고민거리다. 요즘 경향인 얇고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으로는 모공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아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키엘의 '레어 어스 딥 포어 클렌징 마스크'는 모공의 각질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해주고 조이는 워시 오프 마스크다. 아마존 화이트 클레이 성분이 있어 피부 정화와 진정에 좋다.

이니스프리 '수퍼 화산송이 클레이 무스 마스크'는 마이크로 클레이 무스가 피지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마스크다. 모공 속의 노폐물과 피지를 말끔하게 없애고, AHA, BHA이 블랙헤드와 묵은 각질까지 제거한다.

**●전문숍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피부 리프팅 가능**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늘어나고 잔주름이 발생해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 표현이 어렵다. 최근에는 집에서 쉽게 피부 리프팅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많아졌다. 랑콤의 '레네르지 리틀 페이스 롤러'는 얼굴 라인을 입체적으로 가꿔주는 페이스 롤러다. 360도 다이아몬드 커팅 듀얼 헤드가 피부 근육을 이완시켜 처진 턱선을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데콜테 라인(목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부위)과 뭉친 어깨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트리아의 '아이 리뉴 레이저'는 눈가 주름 개선에 특화된 뷰티 디바이스다. 프락셔널 마이크로 레이저가 세포재생을 활성화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잘 낫지 않는 전립선염…봉독 약침요법 효과적

건강

배뇨장애가 나타나면 콩밭,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비뇨기관의 질환을 먼저 의심한다. 그러나 비뇨기관이 아니라도 배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도 존재한다. 바로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이다.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인 남성 가운데 절반이 한 번은 경험한다고 알려진 전립선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립선 부위 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전립선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요도 입구에서 대장균, 녹농균, 장구균 등이 요도를 통해 전립선으로 옮겨져 감염된다. 소변을 참는 잘못된 습관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방광의 소변이 전립선으로 역류해 그 소변의 세균으로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미국 국립 보건원은 전립선염을 총 4군으로 분류한다. 제1군은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제2군은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다. 제3군은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제4군은 전립선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전립선에 염증이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성 염증성 전립선염이다. 일반적으로 전립선염이라고 하면 대개 제3군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말한다. 주 증상은 빈뇨, 야간뇨, 요절박, 약뇨, 복압배뇨, 잔뇨감 등의 배뇨장애와 통증, 불편감이 나타난다. 통증은 주로 골반부위, 즉 회음부나 성기 윗부분과 바깥부분에 나타난다. 제1군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전신 근육통이나 관절통, 오한, 권태감 등이 동반된다.

**●전립선염에 효과적인 봉독 약침요법**

전립선염은 다른 비뇨기 질환과 달리 치료가 어렵고 만성화될 가능성도 높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받는 편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생명의 종합적인 현상을 동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내적 생명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하고, 이를 통해 전신의 상태를 개선해 질환이 저절로 낫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개개인의 체질도 중시해 그 특성에 맞도록 치료하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으로는 벌에서 추출하고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시킨 봉독을 사용하는 약침요법이 있다. 봉독은 통증완화와 항염증 작용에 좋고, 면역체계의 자극을 통해 생체의 방어력을 증가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전립선염에 알맞은 치료법이다.



이지스한의원 강남점 최찬흠 원장

## ▮ 인사

피플

**산업은행** ◇단장 〈창조성장금융부문〉 ▲벤처기술금융실 이웅주 ▲영업부 이정분 〈자본시장부문〉 ▲PE실 윤종국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 김영인 〈경영관리부문〉 ▲총무부 한기원 ▲홍보실 곽경탁 〈자금시장본부〉 ▲금융공학실 김상수 〈PF본부〉 ▲PF1실 현용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흥상

## ▮ 부고

▲현순옥씨 별세, 이영준(SBS 드라마본부 프로듀서)씨 모친상, 이경희(IBK 기업은행 IT수신카드부 차장)씨 시모상=29일 오전 3시20분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031)910-7444

▲이민승씨 별세, 홍배·형석(전 전남대 교수)·진석(유니에스 이사)·태석(이지웰페어 전무)·장석(목포MBC 사장)씨 부친상, 최광진(대전시 상수도본부)씨 장인상=27일 오전 6시 서울대병원 1호실 발인 1일 오전 6시 30분 (02)2072-2091

## ▮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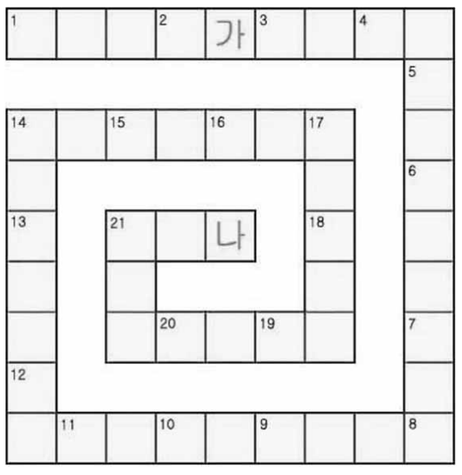
**주형환 장관 "1월 수출 7% 증가…3개월째 오름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30일 올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해 2014년 4월 이후 33개월 만에 3개월 연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인 6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OLED도 약 30% 증가하는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컴퓨터·석유제품·석유화학 등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별기업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연중 발굴해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중견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을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서 수출 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주현의 퍼즐월드

다음 문제의 열쇠를 잘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보세요




**■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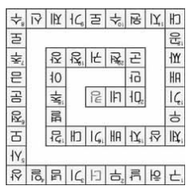
01.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냄. '구○날○'
02. 많은 물건을 한데 모아 수북이 쌓은 더미.
03. 어떤 일을 기념하는 날.
04. 날마다 일어나는 일. 늘 있는 일.
05. 네모반듯한 정자.
06. 정수리를 쇠망치로 두들긴다는 뜻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깨우침을 이르는 말. '○문○추'
07. 가을 이슬을 받은 물.
08. 마음과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림.
09.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10. 강이나 냇물 등의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는 곳.
11. 지상에서 공중으로 향함.
12. '공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
13. 고려 · 조선 시대에,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 오기를 빌던 제사.
14.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15.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16.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
17. 갓 태어나 암컷과 수컷으로 가려 놓은 병아리. '○별○'
18. 가을밤이 길고도 깊. '○야○장' 19. 무과 출신으로 장차 대장이 될 만한 사람을 벼슬길에 추천하던 일. '○귀○'
20. 썩 많은 군사와 말.
21. 의류를 파는 가게에서 선전하기 위하여 옷을 입혀 놓는 사람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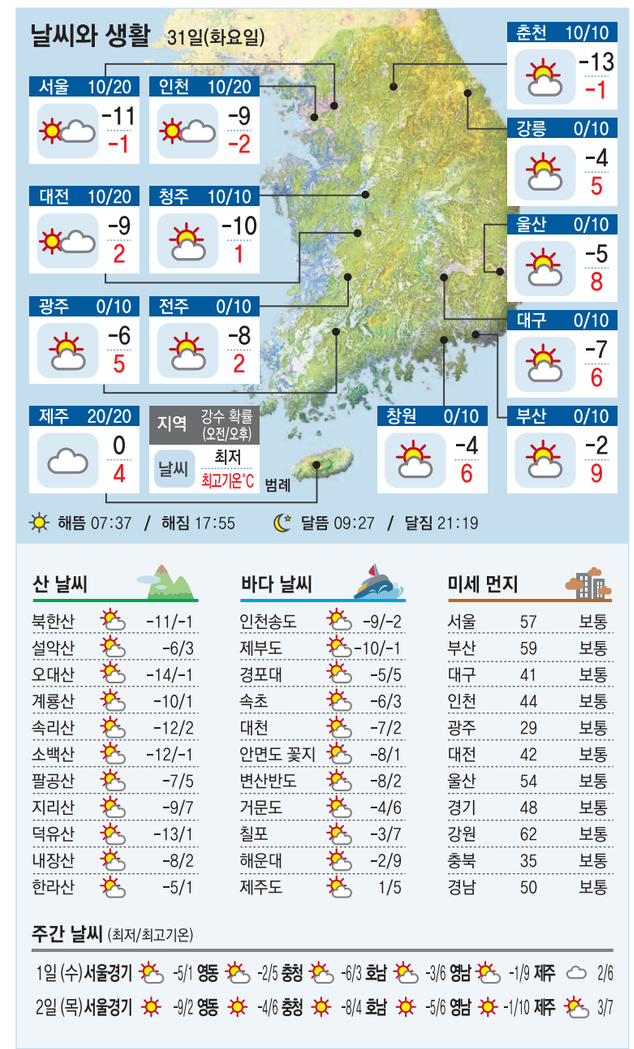
**■ 퍼즐정답**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가, 나**'칸의 글자를 차례로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이름이 됩니다.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31일(화요일) 음력:1월 4일**

| | |
|---|---|
| 쥐 행운색:흰색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길방:서 |
| 소 행운색:적색 |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건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길방:남 |
| 호랑이 행운색:적색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투자자와의 거래성사가 있는 날이다. 길방:남 |
| 토끼 행운색:검정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방:북 |
| 용 행운색:적색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길방:남 |
| 뱀 행운색:청색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친구나 주변인의 유혹으로 음주가무에 빠지기 쉬운 날이다. 길방:동 |
| 말 행운색:청색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무슨 일에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위주가 되어 아내가 힘들어한다. 길방:동 |
| 양 행운색:적색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상사나 주변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거래가 성립되며 수입이 증대된다. 직장인은 승진의 운이며, 미혼자는 남녀 불문하고 결혼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길방:남 |
| 원숭이 행운색:검정 |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감정 제어가 잘되지 않는 날이다. 매사 일희일비 하다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일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침착한 자세로 머리를 써라. 길방:북 |
| 닭 행운색:검정 | 오늘의 마음: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오늘은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욱하고 일어나는 기운의 날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길방:북 |
| 개 행운색:흰색 |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길방:서 |
| 돼지 행운색:청색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길방:동 |
| 재운코너 |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3,7,8,(1,6)**<br>**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토끼,양,돼지**<br>**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용,원숭이** |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승욱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2
스포츠1부 02 2020 1041
스포츠2부 02 2020 1059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산업경제부 02 2020 1060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